



## 근거이론을 통한 여행자의 우연성 경험 분석\*

An Analysis on the Coincidences Experience of Travelers: A Grounded Theory Study

권 장 욱\*\* · 이 훈\*\*\*

Kwon, Jang-Wook · Lee, Hoon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여행에서 쾌락과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우연성 경험의 전개과정과 맥락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행에서 우연성을 경험한 11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거나 유연하게 일정을 변경하는 즉흥여행자나 동반자 없이 혼자서 여행하는 나홀로 여행자가 우연성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즉흥여행과 나홀로여행을 통해 다소 불확실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긴장하고 각종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만 점차 용기 있는 시도를 하면서 우연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심현상인 우연성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조우하는 '동시적 우연'의 형태이거나, 또는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계기적 우연'으로 나타났으며, 그 우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우연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우연성을 경험한 후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우연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거나 특정인의 의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통해 비로소 감탄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적 반응이 나타났으며, 때로는 또는 추억이나 성장의 계기와 같은 의미 부여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삶과 행복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면,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스스로 불확실한 상황을 조성하고, 긴장과 불안을 극복하고 당당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우연성은 여행자들에게 실존적 진정성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기뻐하고 의미를 찾는 일련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우연성, 경험, 진정성, 즉흥여행, 행복, 근거이론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ontext of a coincidence experience that provides pleasure and meaning in travel. The in-depth interviews of 11 participant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As a result, people who experienced coincidence in the trip were either on an impromptu trip without planning or with flexibly changing the schedule, or traveling alone. Participants experienced a coincidence while attempting to be tense and various trial and error at first, as they were placed in a somewhat uncertain environment through*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96)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C2A02082896).

\*\*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조교수. e-mail: jwkwon@dongseo.ac.kr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Dongseo University.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hoon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improvised travel and traveling alone. The central phenomenon – coincidence – is a form of synchronicity in which multiple events encounter at the same time, or it appears as a seriality in which the same event occurs repeatedly. After experiencing the coincidence, people were wondering if the coincidence was caused by someone's intention and an emotional reactions such as admiration and joy emerged only through the conviction that no specific cause was found, or that it was not the intention of someone, or the result of giving meaning such as memories or moments of growth. This suggests that people were experiencing coincidences in the process of creating uncertain situations through trips, overcoming tensions and anxieties, and challenging themselves. The coincidence provided existential authenticity to travelers, which allowed people to experience a series of happiness.*

**Keywords : Coincidence, Serendipity, Experience, Authenticity, Improvisational travel, Happiness, Grounded theory**

## I. 서 론

최근 들어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긍정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인지적인 만족이나 정서적 반응을 불러오는 쾌락, 성취감을 불러오는 몰입, 그리고 삶의 가치를 고민하는 의미로 귀결된다(Seligman, 2002). 성취감을 불러오는 몰입은 결과적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인지적·정서적 반응수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복은 크게 쾌락과 의미로 정리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을 쾌락과 의미의 차원에서 평가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활동은 바로 여행이라고 보고하고 있다(Choi, Catapano, & Choi, 2017). 행복에 가장 큰 여행을 미치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다. 사실 관광 분야에서도 이러한 접근은 있었는데, Cohen(1978)은 여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의미를 추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여행은 쾌락과 의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안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우연성이다. 먼저 쾌락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행에서의 우연성은 예측이 불가하고(unpredictable), 기대하지 않은 놀라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자의 만족도나 감정적 반응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여행자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진정한 기쁨이 느껴진다는 것이다(Botterill, 1987; Tung & Ritchie, 2011). 나아가 여행에서의 우연성 경험은 상승된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Lee, 2016; Kwon & Lee, 2020). 다시 말해 여행에서의 우연성 경험은 행복의 상승을 넘어 높아진 행복감을 추억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게 한다는 것이다.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연성은 크게 기여하고 있다. Wang(1999)은 사람들이 관광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하는 이유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Kim & Chung, 2014; Kim & Jamal, 2007; Yu & Lee, 2017). 이 불확실성을 Cary(2004)는 우연(serendipity)으로 표현하면서 우연을 '특정한 순간에 진실이라고 인식하는 예기치 않은 발견'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우연이야말로 여행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새로운 발견의 영역으로 주목해야 한다

고 하였는데, 세렌디피티의 순간에 분출하는 감동은 승고한 감정과 실존적 진정성에 가깝다고 하였다(Byun, 2013).

이와 같이 여행에서의 우연성 경험은 쾌락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중요한 선행 변인이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나, 아직 그 개념과 영향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우연성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자극에 의해 인지되고 어떠한 상호작용이나 맥락적 조건을 거쳐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며,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여행자의 우연성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특히 여행이라는 경험의 왜 쾌락과 의미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지 우연성 경험의 구조와 행복과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에서 우연이라는 상황과 심리, 주변맥락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위해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며, 최종적인 연구 결과는 여행경험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차원에서 학술적 의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실제로 우연적 상황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우연

지금까지의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우연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크게 내용 중심의 관점과 과정 중심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용 중심의 관점은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과정 중심의 관점은 우연적 사건에 대한 해석 및 대응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Son, 2009). 내용 중심의 관점에서 연구된 대표적인 개념은

serendipity로서 주로 특정 아이디어나 전략적 대안을 얻는 우연적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Cunha, Rego, Clegg, & Lindsay, 2015). 사전에서는 흥미롭거나 가치 있는 물건을 우연히(by Chance) 발견하거나, 타고난 재능(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1987, p. 1319), 가치 있고 호의적인 것이나 아직 찾아지지 않는 선물(Bove, 2002, p. 2072), 우연히(by accident) 또는 찾던 것을 예기치 않게 발견하는 것(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2002, p. 276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Huang, Norman, Hallo, McGehee, McGee, & Goetcheus, 2014). 본래 serendipity는 18세기 영국의 소설가인 Horace Walpole의 페르시아 동화였던 Serendip 왕국 세 왕자의 여행 이야기로부터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 동화는 주인공인 세 왕자가 여행 중에 예기치 않은 발견을 통해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스토리인데 이후 serendipity는 의도하지 않았던 운(fortune)이나 기회(chance)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Yaqub, 2018). 학술적으로도 우연을 독립변수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serendipity를 측정하기 위해 운(fortune)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unexpected pleasure) 등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McCay-Peet & Toms, 2015).

이에 반해 과정 중심의 관점에서 관광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연 개념으로 coincidence가 있다. The Little Oxford Dictionary (1986)에서는 coincidence를 명백한 인과관계(causal connection) 없는 놀라운 사건의 발생이라고 정의했다(Watt, 1999). 이 개념은 오히려 사회과학보다는 과학 분야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는데, coincidence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심리적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결국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비슷한 사건이나 패턴이 반복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된다(Johansen

& Osman, 2015). 결국 이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coincidence의 기본 개념은 바로 정신 심리학자 칼 융이 제기한 동시성(synchronicity)과 생물학자 카메라가 연구한 계기성(seriality)에 기반하고 있다. 동시성은 인과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occurrence)하는 것인데(Henry, 1993),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동양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신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에 의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며, 닥쳐오는 행운이나 불행을 운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세상의 현상은 실체가 만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Lee, 2012). 반면, 계기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물이나 사건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로서, 이름이나 단어, 만나는 사람, 숫자 등에서도 원인 모르게 발생한다(Nechita, 2010).

Serendipity와 Coincidence의 두 개념을 비교하면 '기대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 '놀랍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serendipity는 예상하지 못했던 운에 의해 세속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것을 포함하며, 대개는 재화가 불어나거나 명예를 얻는 경우로 귀결된다(McCay-Peet & Toms, 2015). 반면, coincidence의 경우에는 세속적인 보상을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게 되며, 운명적인 상황에 대해 감탄하고, 일종의 경외감을 느끼게 되며, 성찰을 통해 깨닫거나 스스로 관조적으로 돌아보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우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won & Lee, 2019).

## 2. 우연 경험의 발생 조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우연을 경험하

게 되는데, 모든 우연이 격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 우연을 단순한 우연(mere coincidence)이라고 하는데, 놀라기는 하지만 어쩌다 일어난 것으로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우연은 수상한 우연(suspicious coincidence)이라고 하며, 이를 경험한 여행자는 감탄과 경이를 자아내며, 그 의미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Griffiths & Tenenbaum, 2007). 이 연구에서 말하는 우연성 경험은 후자인 수상한 우연을 말하며, 각종 문헌에서는 수상한 우연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낮은 확률(low probabilities)이다. 기본적으로 우연이란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event)이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확률을 보이는 사건의 발생(occurrence)에 놀라게 된다(Griffiths & Tenenbaum, 2007). Venn(1866)도 우연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는 확률의 법칙(Logic of chance)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으며(Johansen & Osman, 2015), Diaconis와 Mosteller(1989) 역시 우연이란 흔치 않은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Beitman(2009)은 우연의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 우연은 더욱 의미있게 보이며, 수학자 Littlewood(1953)는 백만분의 일의 확률이 되어야 사람들은 비로소 놀라게 여긴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우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같은 고향 출신인 어린이와 지나쳤다면 이는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특별히 감탄도 없으며 운명이라고 여기지도 않기 때문이다(Griffiths & Tenenbaum, 2007). 그래서 우연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개념이 바로 관련성(relevance)이다. 다시 말해 우연이란 당사자와 연관된 일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성이 높을수록 우연으로 받아

들일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 이웃의 일 또는 그의 가족 등 자신과 가까운 우연(close coincidence)이라는 것이며, 특히 그것이 구체적일수록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온다(Dessalles, 2008; Watt, 1999).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unexpectedness)이다. Kuki(2000)는 우연성을 필연성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필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이 경이로운 감정을 창출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예측 불가능에 있다고 보았다(Kwon & Lee, 2019). Dessalles (2008) 역시 우연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기대하지 않음(unexpected)에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예측 불가능은 특정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우연을 통한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Schultz, Dayan, & Montague, 1997; Wilson, Centerbar, Kermer, & Gilbert, 2005).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과관계이다. Watt (1999)은 우연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과적 연계(causal connection)이며, 그 다음으로는 얼마나 그 사건이 다른 것들보다 주목받는지 여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심리상태에 불과하지만, 은연중에 누군가에 의해 숨겨진 구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Johansen & Osman, 2015). 그래서 Marks와 Kammann(1980)도 우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 원인(unseen cause)이라고 하였으며, Dessalles(2008) 역시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너무 쉽게 이

해되면 놀라움(surprise)은 사라진다고 하였다. 우연이란 사실 그 이유(simple reason)를 발견한다면 그리 놀랄 것도 없으며, 이렇게 놀라게 느껴지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숨겨진 원인 때문이다.

### 3. 우연에 대한 해석

앞선 네 가지 우연성의 요인들과 별도로 우연적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 중심의 연구도 우연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Kuki (2000)는 우연을 정언적 우연, 가설적 우연, 이접적 우연으로 분류하였고, 가설적 우연은 다시 이유적 우연, 인과적 우연, 목적적 우연으로 정교하게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연이라고 인식하는 출발은 정언적 우연<sup>1)</sup>이나 이유적 우연<sup>2)</sup>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정언적 우연과 이유적 우연은 원인과 의도를 알 수 없는 인과적 우연<sup>3)</sup>과 목적적 우연<sup>4)</sup>을 만나면서 감탄하거나 놀라게 된다고 하였고, 그 핵심에는 동시성과 계기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우연의 강도가 더할수록 사람들은 그 우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며, 때로는 이 의미라는 것이 필연과 결합하여 맹목적 운명이나 신의 섭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Kuki(2000)의 논리를 정리하면 동시성과 계기성의 인지, 원인과 의도 파악 후 감탄, 의미 해석의 3단계로 우연을 정리하고 있다.

Johansen and Osman(2015) 역시 인간이 우연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정리했는데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그에 따르면 우연을 느끼는 첫 번째 단계는 우연 발견 단계로서 먼저 우연적으로 발생한 동시성과 반복되는 패턴의 계기성을

- 1) 정언적 우연은 특정 실체가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지극히 희박한 것에서 출발하며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이다.
- 2) 이유적 우연은 존재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계기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3) 인과적 우연은 둘 또는 둘 이상의 사건 사이에 인과성 이외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목격하는 경우이다.
- 4) 목적적 우연은 특정 의도나 목적이 없이 특정한 관계가 성립된 경우이다.

체험하면서 놀라게 되는 경우이다. 단 동시성과 계기성만으로 우연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같은 우연이 스스로의 과거나 신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 관련이 있는 동시성과 계기성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원인분석 단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을 고민하는 단계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되면 우연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지만, 인과 메커니즘을 못 찾으면 우연의 일치로 남게 된다. 세 번째로는 방금 경험한 우연이 놀라울 만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단계인데, 확률적으로 희박한 사건인지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확실한 우연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관련성 있는 동시성과 계기성 인지, 원인과 의도의 분석, 희귀성(확률) 검토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3단계에 부가적으로 의미 부여를 추가했는데, 우연에 놓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에 의해 발생

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하였다. Williams(2010) 역시 우연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비록 몇몇 과학자들은 우연의 발생이라는 것이 결국 비이성적인 편향에 의한 근거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연을 경험하면서 작은 일에 감탄하고 기뻐하며 경이로움과 숭고함을 느끼기도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평소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여행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3인

〈Table 1〉 Respondents

	Age	Gender	Occupation	Destination	Type of tour	Number of companion	Residence
A	19	Male	Postgraduate student	China, Japan, Hongkong	FIT	0	Gyeonggi
B	37	Female	Professor	USA, Canada	FIT	0	Busan
C	28	Male	Office worker	Korea Geoje	FIT	3	Busan
D	27	Female	Postgraduate student	USA	Group tour	0	Busan
E	40	Female	Professor	Canada	FIT	0	Gangwon
F	28	Female	Office worker	Uzbekistan	FIT	2	Gyeonggi
G	49	Male	Office worker	Swiss	FIT	0	Seoul
H	35	Male	Office worker	Japan	FIT	0	Seoul
I	42	Female	Housewife	Italy	FIT	1	Seoul
J	38	Female	Wirter	Seoul Korea	FIT	3	Sejong
K	47	Male	Office worker	Turkey	FIT	0	Gyeonggi

\* FIT : Free Independent Tour

의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여행에서 우연경험을 한 사람들을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연구를 지속하였으며,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표본 추출을 중단하였다. 최종적인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여행의 우연성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를 수행 시에는 먼저 연구참여자에게 2-3일 전에 전화, SNS를 통해 인터뷰에 대한 허락을 득하고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였다. 이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송부하여 연구참여자가 답변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평소의 여행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후 우연성을 경험한 여행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우연여행에 대한 설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유도하였다. 대화 도중 여행경험을 지나치게 짧게 설명한 경우는 중간 중간에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였고, 연구참여자에 따라 질문항목의 순서가 바뀌거나 경우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연구참여자가 생각하는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우선적으로 택하였으며, 총 11명이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녹음된 음성 파일들은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전사 작업을

통해 문서로 작성하여 이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건을 인식하는 심리적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의미 있는 이벤트로 인식된다(Johansen & Osman,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행에서 접하는 우연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다른 질적 연구와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어, 객관적인 한 사건이 개인에게 의미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며, 같은 사건이라도 맥락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Yoo, Jung, Kim, & Kim, 2012).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우연적 경험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거이론은 이론적 민감성을 갖고 표본 추출, 코딩, 반복적 비교방법, 메모, 핵심범주 분류, 패러다임 모형의 도출 등 행위자의 경험과정을 원인, 결과, 차이점, 강도, 깊이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다. 또한 인터뷰에서 얻은 면담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고 개방하여 범주화시키며, 핵심 범주와 다른 범주를 서로 연결하여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패러다임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Kim, 2012).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즉시 자료분석으로 이어졌으며, 근거이론의 코딩 방법인 개방 코딩, 축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개방코딩은 인터뷰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각각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축코딩은 상황과 전후 관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범주와 범주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후 새로운 인터뷰를 거듭하면서 수시로 검토하고 수정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도출,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를 도출 작업을 하였으며, 메모 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Lee & Kim, 2018).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편견이 반영될 여지가 많으므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Guba and Lincoln(1981)이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이라는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했다. 신뢰성은 현상에 대한 충실한 서술과 해석에 관한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우연성 경험을 충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해 라포 형성, 참여자 확인을 시도하였다. 전이가능성은 일반인들의 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 바,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확증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편견을 억제하

는 것으로서, 관광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동료 연구자 2인의 검토를 받으면서 논리적 비약이나 과도한 해석의 오류를 제거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개방코딩: 구성요소의 범주화

개방코딩에서는 여행자의 우연성 경험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선별하여 개념화하고 유사성이 높은 개념을 하나로 묶어내는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인터뷰를 4회 실시한 시점부터 시도되었으며, 인터뷰를 추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정하면서 작업을 수행한 결과, 총 46개의 핵심개념과 25개의 하위범주, 11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Table 2〉 Open coding

Core category	Subcategory	Core concept
Improvisational travel	Sudden decision-making	Suddenly and impulsively go on a trip
	Travel without plan	Traveling without preparation Going on a trip without a plan
	Flexible itinerary travel	Decide where to go according to the mood Modified without strict schedule
Solo travel	The whole solo travel	Traveling the entire itinerary alone
	Partly solo travel	Some sections go alone, some together
Curiosity	Interest	longing for the trip excited for the first trip
	Novelty	Each thing to encounter was new something never seen before
Attempt	Anonymity	I will never meet again because I am foreign Far from where I live, no one can recognize me
	Courage	Take the courage to talk Go to the destination with only map by myself



Synchronicity	Accidental encounter	Meet by chance at the same place Meet at the same time festival
	Mysterious encounter	A good guide has been assigned Unexpectedly encountering where you have gone with improvised choices
Seriality	Rate repetition	The same thing happens twice Meet the person I met again
	Repeated luck	Each other's opinions are always the same Experienced luck several times
Low probability	Hard to happen	I think it's ridiculous It is very unlikely that this will happen
	Unexpectedness	No one predicts what will happen No predictions or expectations in advance
Intention	My intention	Not with that intention in advance Not hope for this situation in advance
	Someone's intention	Not directed by anyone Occurs naturally without specific intent
Causal connection	Causal connection	Thinking about why this happened Inevitably analyzing coincidence
	Interpretation	Interpreted as a grace from God Feeling the great fate that decides your life
Admiration	Impression	Thankful heart A crushing impression
	Mystery	Such a situation feels so strange I feel mystery
	Surprise	Amazed how this happened The moment you touch me feels a surprise
Meaning	Recollection	It is an event that leaves a line of life. Remembered as the best trip in your life
	Memory	Clearly remembered even after a long time Not forgotten and vividly left in my mind
	Change	It was a turning point in his life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Growth	Proud of growing up like an adult A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self-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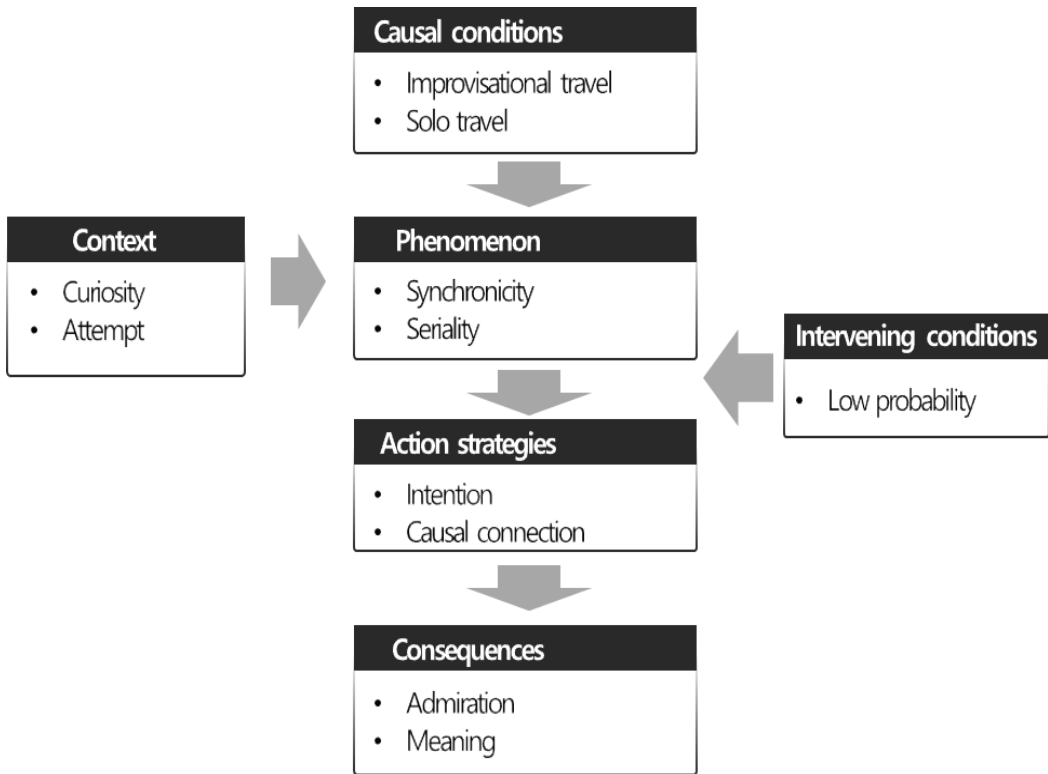
## 2.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분석

축코딩이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11개의 상위범주를 패러다임에 의해 재분석한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즉흥여행'과 '나홀로 여행', 맥락적 조건은 '호기심'과 '시도', 중심 현상은 '동시적 우연'과 '계기적 우연', 중재적 조

건은 '낮은 가능성',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의도 분석'과 '원인 분석', 결과는 '감탄'과 '의미부여'로 도출되었다.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Figure 1>에서 제시하였다.

###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특정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



〈Figure 1〉 Paradigm model of coincidence experience

하도록 유도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는데(Strauss & Corbin, 1998), 먼저 여행에서 우연적 상황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갑자기’, ‘계획 없이’, ‘무작정’, ‘준비 없이’와 같이 즉흥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을 통해 즉흥여행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하나는 여행지를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사전에 여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나 계획이 되지 않은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여행일정을 고정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직관에 의해 순간적으로 결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이다.

우연성 경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인과적 조건은 타인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여행한 경우인데, 이는 여행 전체를 혼자서 한 경우와 여행의 일부만을 혼자서 여행한 경우로 분류되었다.

갑자기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인데도 뜬금없이 가족패키지 상품에 신청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 (D)

사전지식이나 준비가 전혀 없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J)

동생이랑 여행을 갔는데, 동생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이대로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서 무작정 더 놀겠다고 나섰어요. (A)

McCay-Peet and Toms(2015)는 우연성 경험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환경을 제시하였는데, 즉흥적인 여

행은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흥여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독립여행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독립여행 선호자들은 통성 있는 유연한 일정을 선호하며 계획보다는 탐험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신기성과 즉흥성(spontaneity)을 원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yde & Lawson, 2003; Lee & Crompton, 1992). 한편, Yu and Lee(2017)의 나홀로여행에 대한 연구에서 나홀로여행의 본질적 의미를 진정한 자아발견, 다른 여행자와의 공동체감 형성, 여행지의 진정성 경험, 삶과 여행의 의미 추구로 범주화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우연성 경험이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이 발생하도록 하는 배경이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면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도 여행지에서 접하는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용기를 내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해외여행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가 가능하며, 이러한 도전이 없다면 우연적인 상황을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행의 재미가 반감된다고 하였다. McCay-Peet and Toms(2015)도 우연성을 경험할 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특성으로, 경험의 개방성과 외향성을 제안했는데, 맥락적 조건에서 제시된 호기심이나 시도와 관련성이 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떠나는 여행

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기했고 집중해서 보게 되었어요.(B)

사는 곳이 서로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없이 동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볼 것도 아니라서 과감하게 말도 건네보고..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C)

저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잘 안가요. 당시에도 좀 긴장되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서 일본사람들만 가는 허름한 이자카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A)

##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연구참여자가 인과적 조건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즉흥여행과 나홀로여행에서 호기심과 시도를 통해 우연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와 우연히 만나는 경우이다. 무작정 방문한 그곳에서, 다른 곳을 갈 수도 있었고 기차역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만났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고찰에서 다른 동시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경우는 무언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기는 경우이다.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응했는데 새로운 자리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신도 바꿔달라고 하여 같은 상황이 두 번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홍콩 유학생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한류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는데, 여행 중에 홍콩 거리에서 또 다시 재회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론적 고찰에서 다른 계기성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serendipity에서 다른 '행운'과 관련된 진술도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동시적 우연과 계기적 우연에 같은 의미가 포함되면

서 중복 개념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상위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Byun(2012)의 해외 배낭여행객의 관광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에서도 중심현상으로 뜻밖의 즐거움인 세렌디피티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해외 배낭여행이 대부분 혼자 하는 여행과 함께 하는 여행이 반복되고, 일정의 변경이 많다는 차원에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축제장에서 일본인 어머니와 따님을 우연히 만났고, 가방을 맡아준다고 해서 맡기고 따님과 한참 봉오도리 춤을 한참 따라 추고, 도쿄타워까지 차도 얻어타고. 내려서도 같이 사진 찍고, 종이학도 선물로 받았어요. (A)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좋은 가이드 분을 운 좋게 만나서 보트도 공짜로 타고, 경관 좋은 방도 혼자 쓰도록 배정받았어요. (D)

비행기에서 자리를 두 번이나 바꿔달라고 해서 바뀌드렸는데, 우연히 한 유학 온 홍콩 여대생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헤어지고 나서 그 홍콩 분을 홍콩에서 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또 만난 거예요. (A)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중심현상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우연성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여 일어나기 어려울수록 우연의 의미와 감정적 반응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비행기 안에서 자리를 두 번이나 바꾸면서 옆에 앉게 된 것도 신기한데, 여행 중에 다시 한 번 만난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인식하면서 당시의 우연적 상황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가능성이 낮지만 사전에 전혀 예상하기 못했다는 상황도 우연적 경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홍콩 여행 중에도 에이 설마 또 만나겠어? 만나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홍콩거리에서 또 만난 거예요. (A)

여행 중에 가족들과 저녁 먹다가 작은 애 소변이 급하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웬지 낮익은 복도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엄청 술에 취해서 갔던 술집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그곳은 어디였을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본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J)

####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이란 중심현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목표지향적인 속성을 포함하는데(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중심현상인 우연적 경험이 혹시나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결코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으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인 의도 분석은 매우 진지하거나 심각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며, 본능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 분이 목적이냐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은연중에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나온 거라서 더 의미 있었던 거 같아요. (B)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중략) 애당초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I)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예지몽을 꾸는 것처럼 절대자가 나한테 뭔가 암시하는 게 아닐까.. (J)

## 6)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여행 중에 우연적 상황을 경험하고 이것이 매우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걱정적으로 기뻐했다. 또한 이 우연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리며 한층 더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며 감동하는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개인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응답도 있었다. 우선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의 인생의 대표적 사건으로 추억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우연적 상황을 경험하는 우연의 패턴이 혼자서 계획 없이 진행되는 여행이다 보니 불확실성과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고 또 스스로 도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성장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터닝 포인트로서 인생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Yu and Lee(2017)은 나홀로여행에 대한 주제어로서 통찰과 성장을 제시하였는데, 우연적 상황에서 긴장을 극복한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큰 자신감을 주고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Song(2010)의 자전거 관광객의 경험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최종적으로 성장과 발전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렇게 잘 해 주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행 중이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뭉

클해지고..그 일 때문에 여행을 더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아요. (F)

운명적으로까지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 거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E)

이상하게 그 여행은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 그 때 장면이 선명해. (J)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죠. 그 후로 저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계기가 돼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 영어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B)

뭔가 어른스럽게 성장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나도 이런 걸 해 내다니 큰 사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A).

## 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상위범주들을 통합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의 핵심범주는 '여행에서의 우연성 경험을 통한 행복 찾기'로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즉흥여행과 나홀로여행을 통해서 초반에는 긴장감을 느끼고 시행착오도 겪게 되지만,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용기 있는 실행을 통해 우연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고 그 상황이나 원인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감탄하는 등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한 우연성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며, 개인의 인생에서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핵심범주의 관점에서 상위범주의 의미를 재해석하면, 불확실성, 도전, 진정성, 행복의 4단계로 도식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불확실성 단계이다. 여행 자체가 생활하던 터전을 공간적으로 벗어나 경험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동하여 불확실성을 만드는 작업인데, 스스로 낯선 상황에 직면하고 더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즉흥여행과 나홀로여행이라는 선택은 더 큰 불확실한 환경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우연성 경험의 출발점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낯설지만 동시에 새로운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기하게 생각하며 용기를 갖고 실행해 보는 도전의 단계이다.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여행자 스스로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연적 상황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나 실패 또는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도전은 우연은 물론 행복을 체감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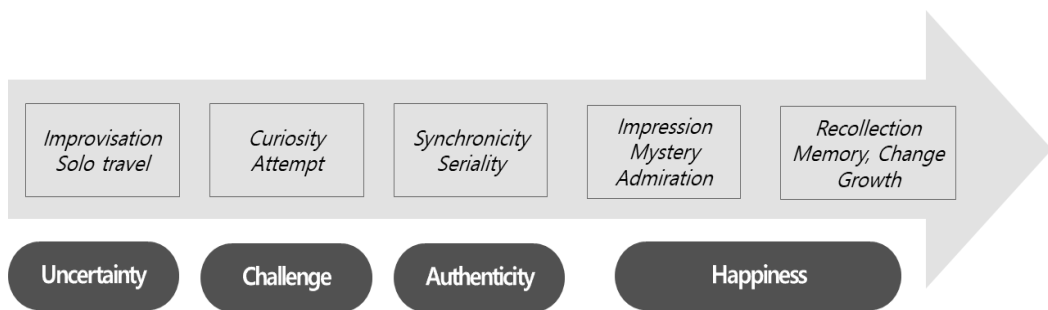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번째 단계인 진정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한 우연성에 대해 놀라고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하면서 실존적 진정성을 체감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Cary(2004)가 우연의 순간에 분출하는 감동은 숭고한 감정과 실존적 진정성에 가깝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연적 경험에 대해 감동하고 놀라워하거나, 추억을 만들고 성장하는 행복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서론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쾌락과 의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행에서의 우연성 경험이야말로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 V. 논의 및 결론

MacCannell(1976)은 관광은 현대인들에게 종교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인들은 산업사회에서 경험하는 자아 상실에 대한 역반응으로서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자연, 문화, 역사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를 넘어선 진정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 진짜와 가짜의 구분, 실재와 상상의 경계가 모호한 현대 사회에서 객관적 진정성은 무의미하며(Eco, 1985; Shim & Santos, 2012), 결국 진정성의 출발은 연출되지 않은 불확실함에 있으며 이후 그 도착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Wang, 1999).

심층 인터뷰에서도 여행자들은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즉흥여행이나 나홀로여행을 선택하였다. 여행이 시작되면 초반에는 긴장감이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여행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거나 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게 되며, 감탄하고, 성찰을 통해 깨달으며, 스스로 관조적으로 돌아보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세렌디피티를 놀라움과 예



〈Figure 2〉 The process of coincidence experience

가치 않은 요소뿐만이 아니라 우발적인 발견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험은 더 의미 있고 더 기억된다고 한 Huang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관광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우연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에서 다루었던 우연성은 serendipity라는 개념으로서 주로 예상하지 못한 행운과 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우연에는 보상을 의미하는 행운과 운 이외에도 같은 시간과 공간상에서 조우한다는 동시성과 계기성이라는 범주가 발견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드문 상황이면서 동시에 나의 과거나 현재와 관련 있는 상황만으로도 여행자에게 감탄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자연과학에서 연구되어 온 coincidence의 개념과 유사하며, 향후에는 우연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적용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우연적 상황을 야기하는 여행으로 즉흥여행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독립여행(independent travel)이라는 개념의 연구가 있었으나, 독립여행은 신기성(novelty)과 우연성(serendipity)을 추구하는 모험추구형 여행자에 가까웠다(Huang *et al.*, 2014; Hyde *et al.*, 2003). 즉흥여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성과 관련 없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갑자기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사전에 여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나 계획을 앉는 경우, 그리고 여행일정을 고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직관에 의해 유연하게 수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여행이 우연성을 강하게 유발하고 있었다. 차후에는 즉흥여행을 하나의 여행패턴 또는 독립된 여행행태로 분리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를 위

한 학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는 우연성을 경험하는데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일탈적 행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거나 몇 단계 네트워크만 거치면 아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감시성이 강해지면서 용기 있는 새로운 시도를 억제하게 된다는 진술이 반복되고 있으며, 용기 있는 시도가 적어지면 우연성 경험의 빈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축제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체면의식이 축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Lee and Lee(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국내여행의 매력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페르소나(가면)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나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모든 성향의 여행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비록 최종 결과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연구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보다 더 높은 대표성을 갖는 샘플을 확보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풍부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오래 기억되는 여행에 비하여 우연성 경험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바로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억이 오래 남는 여행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한 끝에서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Kwon, Jang-Wook: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and Writing(Original draft preparation), Qualitative Analysis and Writing(Reviewing and Editing). Lee, Hoon: Supervision and Validation.**

참고문헌

- Byun, C. B. (2012). The oversea backpackers' travel experiences: Based on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7*(2), 239-262.
- \_\_\_\_\_ (2013). Authenticity of spiritual tourism: Focused on Heidegger's ontologic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7*(6), 75-95.
- Cary, S. H. (2004). The tourist mo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1), 61-77.
- Choi, J, Catapano, R., & Choi, I. (2017). Taking stock of happiness and meaning in everyday life: An experience sampling approach.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6), 641-651.
- Cohen, E. (1978). Rethinking the soci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6*(1), 18-35.
- Cunha, M. P., Rego, A., Clegg, S. R., & Lindsay, G. (2015). The dialectics of serendipity.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3*(1), 9-18.
- Dessalles, J. L. (2008). Coincidences and the encounter problem. In B. C. Love, K. McRae & V. M. Sloutsky (Eds.), *30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pp. 2134-2139). Austin, TX: Cognitive Science Society.
- Diaconis, P., & Mosteller, E. (1989). Methods of studying coincid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4*, 853-861.
- Griffiths, T. L., & Tenenbaum, J. B. (2007). From mere coincidences to meaningful discoveries. *Cognition, 103*(1), 180-226.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enry, J. (1993). Coincidence experience survey. *Journal of the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 59*(831), 97-108.
- Huang, Wei-Jue., Norman, W. C., Hallo, J. C., McGehee, N. G., McGee, J., & Goetcheus, C. L. (2014). Serendipity and Independent Travel.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9*(2), 169-183.
- Hyde, K. F., & Lawson, R. (2003). The nature of independent trav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42*(1), 13-23.
- Johansen, M., & Osman, M. (2015). Coincidences: A fundamental consequence of rational cognition. *New Ideas in Psychology, 39*, 34-44.
- Kim, H., & Jamal, T. (2007). Touristic quest for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181-201.
- Kim, H. G. (2007). Understanding the conceptual linkage between the alienation in the daily life and existential authenticity in tourism. *Journal of Tourism Studies, 19*(1), 41-55.
- Kim, Y. R., & Chung, B. W. (2014). A critical review of existential authenticity in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 38*(5), 79-99.
- Kuki, Shuzo. (2000). *What is coincidences*. Seoul: Iho.
- Kwon, J. W., & Lee, H. (2016). A study on the travel experiences to prolong happiness.



- Journal of Tourism Studies*, 28(4), 171-192.
- \_\_\_\_\_ (2019). Discourse on the mode of serendipity in travel narrative: Focusing on the contingency of Kuki Shuzo.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 43(3), 11-28.
- \_\_\_\_\_ (2020). Why travel prolongs happiness: longitudinal analysis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ourism Management*, 76, 103944.
- Lee, S. H., & Shin, S. S. (2012). Concept mapping analysis of happenstance in career choice. *Th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3(1), 1-20.
- Lee, S. Y. (2012). The problem of a chance in happi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Aristotle and I Ching. *The Study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49, 117-147.
- Lee, T. H., & Crompton, J. (1992). Measuring novelty seeking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732-751.
- Lee, Y. L., & Kim, Y. M. (2018). Pilgrimage motivations through constructivism grounded theory: Focused on christian pilgrim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 42(2), 157-185.
- Lee, K., & Lee, H. (2020). Analyzing the Role of Face Consciousness with regards to Deviant Behavior at Festival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4(4), 191-210.
- Littlewood, J. E. (1953). *A mathematician's miscellany*. London: Methuen.
- MacCannell, D.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 McCay-Peet, L., & Toms, E. G. (2015). Investigating serendipity: How it unfolds and what may influence it.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7), 1463-1476.
- Nechita, E. (2010). Some considerations on seriality and synchronicity. *Brain. Broad Research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1(1), 1-6.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chultz, W., Dayan, P., & Montague, P. R. (1997). A neural substrate of prediction and reward. *Science*, 275(5306), 1593-1599.
- Shim, C. S. & Santos, C. A. (2012). Authenticity issues in urban tourism: Concep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Tourism Studies*, 24(3), 33-56.
- Son, E. Y. (2009). The role of chance and happenstance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1), 385-397.
- Song, Y. M. (2010). An analysis of cycle tourists' experiences using the grounded theo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4(1), 155-177.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Newbury Park,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Tung, V. W., & Ritchie, J. R. (2011). Exploring the essence of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4), 1367-1386.
- Venn, J. (1866). *The logic of chance; an essay on the foundations and province of the theory of probability*. London: Macmillan.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 Watt, C. (1999). *Psychology and coincidences*. In K. Anderson (ed.) *The coincidence*

- file* (pp. 229-237). London, UK: Blanford.
- Williams, G. A. (2010). *Demystifying meaningful coincidences (Synchronicities)*. Lanham, MD: Jason Aronson Publishing,
- Wilson, T. D., Centerbar, D. B., Kermer, D. A., & Gilbert, D. T. (2005). The pleasures of uncertainty: Prolonging positive moods in ways people do not anticip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5-21.
- Yaqub, O. (2018). Serendipity: Towards a taxonomy and a theory. *Research Policy*, 47(1), 169-179.
- Yoo, K., Jung, J., Kim, Y., & Kim, H. (2012).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kyoungsa.
- Yu, S. H., & Lee, H. (2017). Why do people travel alon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 41(6), 81-99.

**Received** June 28, 2020

**Revised** July 30, 2020

**Accepted** September 02, 2020